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 인생을 비교하지 말고 살자

조선 세종 때 유명한 정승이었던 황희(1363~1452)가 관직에 있을 때 지방순방길에 있었던 이야기다. 두 마리의 소로 쟁기질하는 농부를 보고 “여보게 농부, 어느 쪽 소가 일을 더 잘하는가?” 하고 묻자 농부는 쟁기질을 멈추고 황희 정승의 곁에 와서 귀에다 입을 대고 “왼쪽 검정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라고 말했다.

황희는 이상히 생각해서 “그 칸 말을 여기까지 와서 귀에 대고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자 농부는 “두 마리 소가 다 열심히 일하는데 소가 듣는 곳에서 어느 쪽 소가 일을 더 잘한다면 다른 쪽 소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해서 소가 듣지 않는 곳에 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른은 알만한 분이 왜 그런 비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자 황희는 “소가 말을 알아듣는다니” 하자 농부는 “소가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쟁기질하겠습니까?” 하며 황희가 보는 데서 농부는 농부가 말 한대로 두 마리의 소가 움직이고 멈추고 가고 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청백리로 유명한 황희 정승은 관직에 돌아와 농부의 말을 명심해 비교하고 평가하는 상대평가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생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말하고 있다. 사람마다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며 사는 환경이 다르다. 이러한 인생을 비교 평가하고 있는데, 비교 평가하는 데는 척도인 평가 기준이 있다. 그 평가에는 한 사람만 보고 목표에 얼마나 접근했는가의 절대 평가가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앞서고 뒤에 선 서열 평가인 상대평가가 있다.

상대평가에서 앞선 자는 교만하고 남을 멸시하며 뒤에선 자는 열등의식을 갖게 된다. 절대 평가에선 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의 자기 평가이기 때문에 성취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비교하는 상대 평가는 앞선 자에게도 뒤에선 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가의 인생 목적과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겠다는 인생 목표가 있어야 한다. 부자가 되겠다고 하면 왜 나의 인생은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어느 수준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부자 수준 목표가 있어야 하며 인생의 종말은 빈손으로 가는데 부자가 된 다음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인생이 목적도 목표도 없이 산다면 보람 있는 인생이 아니며, 확실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온 힘을 다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찾아야 한다. 목적도 목표도 없는 인생은 맹

목적인 인생이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 행복의 척도는 비교 평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절대 평가인 자기 목표 도달에 대한 보람에서 찾아야 한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 라는 노랫말처럼 나는 내가 선택한 인생길에서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 있는 삶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교육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평가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평가는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며 피교육자의 편에서도 자기 목표 도달에 대한 자극제로써 평가는 해야 한다. 비교 평가의 문제점을 황희 정승에게 일깨워준 농부의 지혜를 우리는 배우고 우리의 삶에서 누구는 어떤데 나는 어떻다는 자기 우월감과 자기 비하의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인생에서 비교하지 않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하며 그렇다고 우물 안 개구리가 돼 외부의 변화를 몰라서는 안 되며, 외부의 변화에 대한 나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 도달을 위해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보다 잘하고 못 한다는 비교하는 평가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기 목표에 도달해 만족을 느끼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비교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실천했으면 한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잘 산다.’라는 노랫말이 있다. 못난 사람이 있으므로 잘난 사람이 있음은 알고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모두가 똑같으면 잘나고 못난 것이 없다. 비교하기 때문에 잘나고 못남이 생긴다.

독자기고

##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강화로 화재 예방 함께해요

이재형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장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큰 피해를 남긴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무엇이며,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여객터미널·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료기관·노인요양시설·장례식장·실내주차장·어린이집·학원,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등 여러 시설이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관내 화재(783건) 중 전기·가스화재가 16%(129건)으로 129건 중 주택이 37건(28.7%),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는 총 239건의 화재가 발생 중 부주의가 133건, 전기적 요인 42건, 기계적 원인 2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담배꽂초 방치나 음식물 조리 중 자리 이석, 불씨·불꽃 화원 방치 등에 관심을 두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발생 요인이 다양하며, 시설물의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조로 이뤄

져 있어 대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불감증 역시 큰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관심과 노력 그리고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대응 할 수 있다.

먼저, 시설물의 관계자는 건물의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 및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화재 발생 시 인명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상구를 잠그거나, 훼손·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 또한 평소 직원들과 함께 화재 발생 시 ‘119신고’, ‘화재 초기 진화’, ‘인명대피’ 등 각자 역할을 사전에 지정해 화재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와 정기적인 훈련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 꼭 한변쯤은 대피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 이용 중 화재 발생 경고음이 들린다면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

간혹, TV 뉴스와 신문 등을 통해 매일 화재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있다. 화재 예방과 대응은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실천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더 이상 안타까운 소식을 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실천해 나가길 바라본다.



###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기영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사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피브로알로에

GREENFIBROOMEYE

# 그린피브로디엠아이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